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 하느님은 빛이 맞습니다



어느 신부나 하는 고민이겠지만, 나는 하느님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작용’ 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느님으로 먹고사는(?) 사제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내면적인 갈급에 대한 응답이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느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한 인물들이나 교회의 유명한 성인들이나 체험할 수 있는 분인가? 하느님 체험에도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심리치료를 하면서부터입니다.

내가 하는 심리치료는 대화식으로 하는 상담과는 많이 다릅니다.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눈을 감게 하고 그 사람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 머리가 아파오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하는 신체적으로 특정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생생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영상을 본다는 것은 영화를 보듯이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직접 그 장면 안에 들어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대부분 바깥의 현실과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상상해내는 장면이 아닙니다. 소위 ‘내면세계’입니다. 그 안에서 자

---

신에게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직면하고 해소하는 작업들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고통이 따르는 힘든 과정입니다. 이런 내면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치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심리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것을 관찰해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치유와 영성적 성장을 주관하고 진행시키는 어떤 주체가 있음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역할은 그 사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유하는 힘의 과정에 연결시켜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치유하는 주체는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나는 단연코 하느님이라 확신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거주하시는 하느님, 즉 성령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내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들 중에 그리스도교나 불교 등 특정 종교의 이미지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종교적 이미지들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가히 하느님의 작용하심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미지들과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강렬한 ‘광명 현상’입니다. 나에게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 6명 정도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아주 강렬한 빛의 현상을 봅니다. “신부님 눈을 뜨면 안 될까요? 빛이 너무 강해요”라고 인상을 찡그리고 말할 정도로 강한 빛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과 함께 뜨거운 열기도 함께 느껴 걸옷을 벗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체험하는 빛은 눈을 아프게 하는 빛이 아니라 황홀감과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빛입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면의 빛입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빛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수개월 간의 심리치료가 진행되면서 마음 안에 응어리져 있던 어두운 마음의 짐 덩어리들이 해소되면서 나타납니다. 나는 그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와 죄로 인해 그동안 억압되고 갇혀 있었던 성령의 기운이 빛의 형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 짐작할 뿐입니다.

여러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빛을 신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하느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하느님을 빛으로 묘사하는 성경적 표현이 그저 뜬구름 잡는 관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느님은 빛이 맞습니다.

구담 본당 김기환 요셉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오늘의 복음과 독서의 말씀은 희생과 단식을 하며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청하며, 이 전례에 참례합니다.

**입당성가** : 414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 본기도

†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역대기 하권 36장 14절-16절, 19절-23절

**안 내** :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칙서를 반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명합니다.

**묵 상** :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배의 고통 중에도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치욕과 영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도 위로와 희망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화답송** :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제2독서 : 에페소서 2장 4절-10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께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전합니다.

**묵 상** : 자비의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우리는 굳센 믿음 안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로 살아갑니다.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요한 3장 14절-21절

---

**강 론** : ‘하느님은 빛이 맞습니다’(1-2쪽)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78번 ‘성체 앞에’

**영성체 후 묵상**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는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이사 66,10-11)

**<침묵>**

치욕과 절망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세상의 어둠 속의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침묵>**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 주시고  
약한 이들에게 힘주시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를  
빛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길 청하며.....

**공지사항**

**파견성가** : 121번 ‘한 많은 슬픔에’

**※ 공소사목 성금**

모숙자님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70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림

###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 지구 구역·반장연수

- 북부지구 : 3월 11일(주일) 휴천동 성당
- 동해지구 : 3월 18일(주일) 영해 성당
- 시간 : 10:00 - 16:00
- 준비물 : 필기도구, 미사준비
- 대상 : 각 본당 구역·반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 2018년 열린 성경 강좌 1

- 일시 : 3월 12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준비물 : 신, 구역 성경
- 참가비 : 1인 3,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 교구 수도자 모임

- 일시 : 3월 13일(화) 10:00 - 16:00
- 장소 : 교구청
- 대상 : 본당, 공소(농민)사목 수녀, 출판 및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수녀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도구

### ■ 꾸르실료 월례미사

- 일시 : 3월 19일(일)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 제4회 한국청년대회 참가자 모집

- 주제 :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요한 6,20)
- 일시 : 8월 11일(토) - 15일(수) 4박 5일
- 장소 : 서울대교구
- 대상 : 만 16세(고1) ~ 만 39세
- 참가비 : 20만원  
(참가비 15만원+교구회비 5만원)
- 신청 : 3월 7일(수)까지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교구 홈페이지(<http://www.acatholic.or.kr>)에 자세한 일정과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 ■ 교구 ‘성모의 밤’에 봉헌할 기도 참여하기

- 일시 : 5월 1일(화) 19:30
- 장소 : 교구청 성모상 앞
- 주관 : 안동교구여성연합회
- 대상 : 전 신자
- 기도지향 : 교구 50주년을 맞이한 안동 교구를 위하여
- 방법 : 미사, 묵주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본당별로 성모님께 봉헌(본당 여성단체 대표 4월 30일까지 모아서)

###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율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 3월 17일(토) 14:00
- 장소 : 서울 개화동 수도원
- 대상 :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 문의 :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 ■ 수도자들과 함께 하는 부활 전례피정

- 일시 : 3월 29일(목) 16:30 - 4월 1일(목) 13:30
- 장소 :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집
- 참가비 : 22만원
- 문의 : 054-971-0722, 010-9877-4739

### ■ 2018년 교황청 꿈나무캠프

- 일시 : 8월 14일(화)-16일(목)
- 장소 : 대전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 대상 : 초등부 3~6학년 / 선착순 300명
- 참가비 : 비회원 125,000원 / 회원 80,000원
- \* 회원 가입 시 회원가 즉시 적용
- 문의 : 02)2268-7103, pmsk@pmsk.net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7장

#### 자녀 교육의 강화

259. 부모는 자녀의 도덕적 발전에 언제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러한 근본적인 책임을 받아들여 의식적이고 열정적이고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의 이러한 교육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260. 가정은 [교육] 방법을 다시 마련하고 새로운 자원들을 찾아야 하지만, 지지와 동행과 안내의 자리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 주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녀들에게 즐거움과 오락을 마련해주는지, 텔레비전과 다른 전자 통신 기기들을 통하여 어떠한 것들이 자녀들의 방을 파고드는지, 자녀들이 여가 시간에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하며 애정을 다하여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들이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 폭력, 학대, 약물 중독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261. 그러나 집착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처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을 지배하는 것보다 과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자녀의 행방을 알려고 하고, 자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집착한다면, 부모는 자녀의 공간만을 지배하려는 것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지 못하고, 힘을 길러주지도 못하며, 도전에 맞서게 하지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랑을 쏟으며 자녀들이 자유를 키우고, 소양을 지니며, 온전한 성장을 하고, 참다운 자립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이러한 방식

으로만 자녀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현명하고 신중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행동하는 자질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있는 물리적인 공간, 또는 지금 이 순간 자녀들과 함께 있는 이에 대하여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본질적 의미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념과 목표, 바람과 꿈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모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들의 여정에서 진정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기를 바랍니다?”

262. 만약 성숙이 단지 우리 유전자 정보에 이미 담겨 있는 것의 발전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함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지각은 단지 양적인 성장 요소들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적 내면 안에서, 더 정확하게는 그 자유의 핵심에서 종합을 이루는 요소들의 전체적인 연결고리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이러한 자유에서 생겨난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교육에는 올바른 감각과 지성으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고, 자유는 그 자체로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꺼이 이해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 재미있는 옷놀이

이춘희 테클라  
(안동가톨릭문인회)

우리나라 옛 사람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하여 옷놀이를 즐겨왔다.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놀이인 만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놀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태어나 동네 어르신들이 정월 보름이면 전통적으로 치루는 것 중에 옷놀이와 지신밟기가 있었는데 이처럼 흥겹고 신기한 계절전통놀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랐다.

마을 계추의 유사가 되는 집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아랫마을 윗마을 편을 갈라 옷놀이가 시작되면 오동나무로 만든 옷가락을 던지며 흙 마당에 그려진 커다란 옷판에 나무토막이나 작은 돌맹이로 옷말을 놓곤 하셨던 그 모습들이 참 소박한 풍경으로 기억 된다.

흑백으로 팀을 나눠 백팀이 이기면 그 해 풍년이 들어서 농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백팀이 이기면 유사를 맞는 집에서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고, 마을에 어린아이들도 어르신들도 한마음으로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하루 온 종일 그 집에서 보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옷놀이가 끝나면 팽과리 소리와 함께 동네 사물놀이 팀은 흥겨운 춤을 추며 집집마

다 지신을 밟는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그 집의 지신을 밟아서 잡귀를 쫓아 한해가 무사하고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의미로 사물놀이 팀은 마당에 들어와 부엌과 소마구간 뒤편길을 휘돌아 나온다. 그러면 그들에게 막걸리 한잔씩을 마시게 하고 돈을 쥐어 주곤 하였다.

웃놀이와 지신밟기가 내겐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고 소중한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을 생각 하면 지금도 그리워진다.

농사를 짓고 살았던 농촌 마을이라 정월 보름에 계절웃놀이를 통해 농사 점을 보는 셈인데, 참 순수한 놀이가 오늘날까지 오래토록 전해져 온다는 것은 재미있고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명절에 놀이라면 화투놀이도 있지만, 여럿이 친교를 이루는데 웃놀이만한 것이 없을 것 같다.

세 살 난 어린아이라도 그냥 던지기만 하면 재미있는 도, 개, 걸, 웃, 모가 나오니 국민놀이가 맞는 것 같다.

웃놀이는 웃말을 잘 쓰면 이길 확률이 높지만 상대방에게 잡힌다면 다시 웃말을 써야하니 승리를 앞두고 뒤따라오던 상대방 웃말에 잡혀서 지기가 일쑤다. 그러니 아슬아슬한 고개를 몇 번씩 넘어서 겨우 이기면 난리가 난다. 일어나 춤을 추고 큰소리로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도 아무도 나무랄 사람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다.

얼마 전에 구역회에서 웃놀이를 하였는데 우리 구역 형님들과 던지며 놀이하던 그 웃판에는 천당과 지옥이 그려져 있었다. 웃판을 재치 있게 그리신 구역장님 덕분에 천당과 지옥을 드나들면서 눈물 콧물을 짜내며 한바탕 재미있는 놀이를 하였었다. 얼마나 즐거웠던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온다. 내가 수차례 지옥에 떨어져 다 이긴 웃판을 뒤집는 관계로 우리 편이 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지옥을 자주 드나들어 죄인이 되었고, 회개하여 천당을 가야 한다고 하였다. 사순시기에 걸맞은 웃놀이를 통하여 회개거리를 생각하게 되었던 유익한 구역웃놀이였던 것 같다. 새해 들어 설 명절도 지나고 첫 모임으로 오늘 우리성당 성모회에서도 또 웃놀이를 하였다. 성모회를 창단하여 첫 모임에 식당을 빌려 맛난 숯불갈비도 먹으며, 웃놀이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에 따른 상품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오늘 웃놀이는 회원이 많은 관계로 천당 지옥은 없었지만 나름 즐거웠다. 사랑, 믿음 팀으로 편을 갈라 웃가락을 던지며 흥겨운 응원과 웃말 잘 쓰는 우리 편 선수 덕에 우리 사랑 팀이 승리를 거두었다. 성모회 친교를 위한 놀이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다. 웃가락을 던져 옆으로 비스듬히 누우면 서로가 자기편 유리한대로 우기기 시작한다. 그래도 놀이가 끝나면 언제 우겼는지 화기애애하다. 웃놀이는 우기는 재미도 한 몫 한다고 성모회장님이 그러셨다. 떠들썩하게 놀이를 하고나니 왠지 마음이 조금 무거워 지는 느낌이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축제를 준비하는 사순시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 뜻을 새기고자 십자가의 길 기도를 묵상하기도 하는 우울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고 떠들며 즐거운 웃놀이를 하였던 것이 마음에 부담을 느낀 것 같았다. 하지만 올해는 본당 쇄신의 해이니만큼 다가오는 기쁜 부활의 잔치 때 음식도 장만하고 나누는 일을 맡은 성모회의 첫 번째 웃놀이를 통해 친교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어느 해 보다 기쁜 부활을 맞이하리라 생각하고 사순시기에 즐겼던 웃놀이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바꾸기로 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본당 쇄신은 절로 되지 않을까 싶다.

(데살1서 5,16-18) 말씀을 떠 올려본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 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 하십시오”. 국민놀이의 하나인 계절웃놀이로 즐거웠던 하루는 지나고, 다가오는 부활을 기쁘게 맞이할 것 같은 좋은 예감으로 오늘밤도 사순 묵상집을 펴놓고 감사히 마무리를 해본다.